

면담자의 라포 형성 형태, 소요 시간 및 아동의 평소 불안 수준이 사건 기억에 미치는 영향*

이 승 진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곽 금 주¹⁾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동의 회상 보고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면담자의 라포 형성 형태와 라포 형성 소요 시간을 달리하여 면담의 구조적 특성이 연령에 따른 아동의 자발적 보고와 암시적 정보에 대한 저항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4-9세 아동 148명이 라포 형성의 형태(개방형 vs. 직접형)와 라포 형성 소요 시간(short vs. long)에 따라 무선 할당되었다. 연구 결과, 모든 연령에서 개방형 라포 형성 조건에서 직접형 조건에 비해 아동의 자발적 보고, 즉 자유 회상적 보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방형 라포 형성 조건의 아동들이 암시적 질문에 대한 저항도 더 높은 수준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라포 형성에 소요한 시간 변수가 아동 기억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라포 형성 소요시간은 아동의 평소 불안 상태에 따른 상호 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평소 불안 상태가 높은 아동들은 긴 라포 형성 조건에 비해 짧은 라포 형성 조건에서 면담자가 제공하는 암시적 정보에 대한 순응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평소 불안 상태가 낮은 아동들은 라포 형성 소요시간에 따라 오정보의 반응에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진술 조사 맥락에서 피해 아동의 평소 불안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라포 구축의 필요성과 그 의의에 대해 논의 하였다.

주요어 : 라포 형성 형태, 라포 형성 소요 시간, 불안, 아동 기억, 아동 진술

* 본 연구는 2013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연구비에서 일부 지원받아 실시하였음(No. 2013027998).

1)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 kjkwak@snu.ac.kr)

I. 서론

최근 아동 성폭력 및 신체 학대와 같은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이 목격자, 피해자 혹은 참고인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진술과 회상 보고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연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idley, Gabbert, & La Rooy, 2012).

아동 회상 보고의 정확성과 관련된 국외 선행 연구들은 주로 아동의 기질이나 부모와의 애착 상태, 아동의 인지적 능력 혹은 언어 능력과 같은 아동의 내적 특성들이 회상 보고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해 왔다(Blandón-Gitlin & Pezdek, 2009).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아동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목격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아동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들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아동이 보고하는 정보의 양과 정확성은 아동의 내적 요인들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곽금주, 이승진, 2006). 이에 따라 진술 조사 맥락에서 피해 아동 면담 혹은 아동이 연루된 범죄 수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Jones, 2003).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내적 특성들 이외에도 면담자의 태도나 면담의 구성과 같은 면담의 질적 차이가 아동 회상 보고의 정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반복 검증되어 왔다(Hershkowitz, Lamb, Katz, Malloy, 2013). 이는 결국 아동으로부터 수사

가치가 있는 정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아동의 언어 및 인지 능력과 같은 아동의 내적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면담 절차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 회상 보고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면담자가 제공하는 환경적 측면, 특히 진술 조사 면담의 방식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아동 수사면담 시 면담의 질적 차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면담에 임하는 면담자의 태도, 구체적으로 면담 초반에 구축되는 아동과의 라포 형성(rapport-building)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면담자와 아동의 적절한 라포 형성은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심리적 교감의 역할을 한다. 고전적인 임상 및 상담 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은 면담 시 충분한 라포 형성이 피면담자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참여와 자발적 보고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왔다(Morgan & Friedemann, 1988). 이와 같은 현상을 동기적인 측면으로 설명해 보면, 면담자와 아동의 원활한 라포 형성은 경험한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회상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아동의 내적 의지를 자극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Hynan, 1999). 조사된 바에 의하면 진술 조사 면담에서 범죄 피해 아동의 1/3 이상이 낮은 면담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rshkowitz, Horowitz, & Lamb, 2007). 또한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의 경우 학대 경험 이외에도 사건 조사를 위한 반복 면담들로 인해 굉장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ondon, Bruck, Ceci, &

Shuman, 2005). 따라서 면담 시 라포 형성은 임상적 면담(Wood, McClure, & Birch, 1996), 평가적 면담(Powell & Lancaster, 2003)에서 뿐만 아니라 수사면담(Ruddock, 2006)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라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아동은 면담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되고 이는 면담자로 하여금 부적절한 형식의 질문, 비밀관된 태도, 민감한 주제에 대한 성급한 언급을 제공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Hershkowitz, Orbach, Lamb, Sternberg와 Horowitz(2006)가 학대 경험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던 아동들의 면담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면담 초반에 라포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충분한 라포 형성의 결과로, 학대 피해 아동은 수사면담자의 질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사건과 무관한 일상적인 경험들에 한해서만 제한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동의 이와 같은 반응으로 인해 면담자는 아동에게 오히려 정서적인 지지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수사면담에서 중요시 되는 개방형 질문이 아닌 암시적 질문과 선택형 질문을 빈번하게 제공하였다. 결과적으로 불충분한 라포 형성은 아동 보고의 양과 질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Hershkowitz 등(2006)의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면담 상황에서 면담자는 면담 초반에 반드시 아동과 충분한 라포를 형성해야 하며, 아동이 편안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수사면담 단계로 성급하게 이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특히 면담 초반의 라포

형성 과정을 통해 면담자들은 아동이 본격적인 면담에서 낯선 면담자를 꺼려하고 면담에 비협조적이거나 높은 불안감을 보일지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면담자들이 아동의 태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면담 단계에서 아동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라포 형성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Wood 등(1996)의 연구에서 면담 초반 라포의 질적 특성이 학대 피해 경험을 진술하고자 하는 아동의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던 아동이 면담자와 라포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면담자에게 마음을 열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통해 라포 형성은 면담자와 아동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뿐만 아니라, 아동이 상기하기 불편한 사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라포 형성이 아동의 진술 정확성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Ruddock(2006)의 연구는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회 복지사들이 성학대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술 조사 면담에서, 라포 형성의 대표적인 3가지 행동들, 즉, 정서적 지지(정서적 단어들과 아~, 그래, 와 같은 반사어들 제공), 인지적 지지(아동의 응답에 대해 부분적인 끄덕임과 다시 표현해 주기), 시각적 지지(눈맞춤)를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이와 같은 3가지 행동들을 많이 제공한 면담일수록 아동으로부터 지속적인 진술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이 보고한 사건 세부 묘사의 양과 관련해서는 이 3가지 유형이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는 아동이 보고한 세부 묘사의 수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인지적 지지는 아동이 보고하는 수와 부적 상관을, 시각적 지지는 아동 보고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Sternberg 등(1997)의 연구에서는 성학대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라포 형성 단계에서 질문 형태를 개방형(open-ended) 혹은 직접형(directive)으로 달리하여 면담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피해 아동들은 아동의 일상생활이나 과거에 발생한 특정 사건(최근 생일 혹은 기념일과 같은)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 라포가 형성된 경우, 폐쇄형 질문으로 라포가 형성된 경우에 비해 자신의 학대 경험과 관련된 사실들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실험실 연구가 아닌 조사 연구였기 때문에 아동이 보고한 내용의 정확성은 평가되지 못하였다. 이후 Roberts, Lamb과 Sternberg (2004) 연구는 상이한 라포 형성 형태에 따른 아동 회상 보고의 정확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구진이 사전에 계획한 가장 놀이를 활용하여 라포 형성 형태를 개방형과 직접형으로 조작한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접형으로 라포 형성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해 개방형으로 라포 형성이 이루어졌을 때, 아동 보고의 정확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방형이나 직접형과 같은 라포 형성의 방법 이외에도 라포 형성의 소요시간 역시 아동의 회상 보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Davies, Westcott와 Horan(2000)은 라포 형성에

소요된 시간이 학대 경험에 대한 아동의 회상 보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연구 결과 라포 형성이 8분 이상으로 이루어진 면담에 비해 라포 형성이 상대적으로 짧은 8분 이내로 이루어진 면담에서 피해 아동으로부터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CBCA) 준거에 해당하는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긴 라포 형성이 본격적인 수사면담 단계에서 아동과 면담자의 주의력을 감소시켜 질문과 응답에 대한 집중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Davies 등(2000)은 추가 분석을 통해 면담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수사 사건에 대한 언급을 꺼려한 아동일수록 라포 형성이 길게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Davies 등(2000)은 아동의 개인차 특성에 따라 라포 형성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Teoh와 Lamb (2010)의 연구에서는 나이든 아동들보다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 하였을 때 면담자들이 라포 형성에 소요한 시간이 비교적 길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연령 그 자체보다도 아동의 연령에 따른 불안 수준에 의한 것으로 불안 및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고 자발적인 자유 회상이 어려운 어린 아동들을 본격적인 수사면담에 준비를 시키기 위해 즉, 어린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자유 회상 보고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욱 많은 단어를 사용하여 라포 형성을 하고자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었다.

선행 연구 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아동이 면담 초기에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에 대해

면담자와 공유하며 면담자가 그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제공하는 것(Hershkowitz, 2009), 면담자가 발언을 자제하고 아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Teoh & Lamb, 2010), 라포 형성 기간이 너무 길거나 인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는 것(Davies et al., 2000) 등을 통해 아동 회상 보고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이 원활한 라포 형성은 아동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아동의 기억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oberts 등(2004)의 연구 이외에는 면담자의 라포 형성과 아동 진술의 관계성에 대한 과학적이며 경험적인 연구들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Lamb, Orbach, Hershkowitz, Esplin과 Horowitz(2007)의 논문에서도 아동 진술 조사 맥락에서 라포 형성의 체계적인 절차와 아동의 특성에 따른 라포 형성 방법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언급된 바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NICHD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미국국립아동인간발달연구소) 아동 수사면담 프로토콜에 라포 형성 절차가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이 프로토콜은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과 기억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면담에 협력하고자 하는 아동의 동기적 요인들이나 아동의 보고를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Lamb et al., 2007). 그 결과 수사면담자가 라포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프로토콜에서는 구체적인 라포 형성 방법, 즉 어떠한 형태의 질문과 축진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지, 라포 형성에 소요되는 적절한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사면담의 라포 형성 단계에서 면담자 스스로의 개별 역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Hershkowitz et al., 2013). 이에 따라 많은 수사면담자들이 아동과 원활한 라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대 피해 아동들을 면담한 실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많은 면담자들이 본격적인 수사면담에 들어가기 전에 라포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면담자가 라포 형성 단계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이 정확한 진술을 하기에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Westcott & Kynan, 2006).

수사면담에서 성학대 피해 조사를 받는 아동들은 자신의 고통스런 경험을 보고해야 하며, 법정 조사 면담 자체가 본질적으로 경직되고 스트레스적인 환경이라는 점을 간주해 볼 때 올바른 라포 형성의 방법과 소요시간이 수사면담에서 아동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회상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지적인 제약이 많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사면담을 실시할 경우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라포를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라포 형성의 형태와 소요시간에 차이를 둔 특성에 따라 아동 진술의 양과 질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적 맥락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라포 형성의 형태와 소요 시간이 아동의 회상 보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라포 형성의 특성이 아동의 내적 요인들, 특히 평소 불안 수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역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라포 형성이 개방형으로 이루어진 경우, 직접형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비해 면담에서 획득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보고의 전반적인 정확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왜냐하면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라포 형성 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면담에서도 경험한 사건에 대한 서술적 보고를 보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라포 형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고 해서 라포의 질이 향상되고, 따라서 면담에서 획득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며 정보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적절한 라포 형성 시간은 연령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연령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 다소 긴 라포 형성은 아동의 집중도뿐만 아니라 면담자의 집중도에도 영향을 주어 전반적으로 아동 진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Teoh & Lamb, 2010), 낯선 환경에 더욱 취약하고 자발적인 회상이 어려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라포 형성이 다소 길 때 아동의 긴장과 불안이 완화되어 전체 회상 보고의 양이 증가하고 그 정확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나아가 어린 아동의 경우 라포 형성 방법보다는 라포 형성 소요 시간이 아동 회상의 양과 정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소 불안 수준이 높은 아동은 낯선 상황에서 긴장이나 공포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Chen, Zeltzer, Craske, & Katz, 2000), 면담자와의 효과적인 라포 형성은 불안 성향 아동의 진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평소 불안 수준이 높은 아동일수록 개방형 라포 형성 조건이나 상대적으로 긴 라포 형성 조건에서 회상 보고의 정확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4-9세 아동 총 160명을 유치원과 어린이 미술 학원을 중심으로 모집하였다. 면담이 대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예: 아동의 정서적 상태, 주의력 부족 등에 의해 면담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12명의 아동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총 148명(남아 73명, 여아 75명)의 아동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아동들은 연령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뉘었다: 4-5세($n = 49$, $M(SD) = 57.96(7.21)$, 범위 = 48-70 개월), 6-7세($n = 50$, $M(SD) = 80.26(7.24)$, 범위 = 72-95 개월), 8-9세($n = 49$, $M(SD) = 105.20(10.08)$, 범위 = 96-119 개월). 각 그룹의 남아와 여아 수는 비슷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김연수와 박금주(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행동 설문지(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Putnam & Rothbart, 2006)’ 축약형을 통해 평가된 아동의 기질에 관한 피드백과 연구 참여 수료증이

참여 후 한 달 이내에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배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일수록 환경적 맥락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이승진, 박금주, 2013) 라포 형성의 종류와 소요시간이 연령에 따라 아동의 자발적 보고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의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이 골고루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령 이외에 아동 성별, 가족 관계, 사회 경제적 상태 등에 따른 제한은 없었다.

2. 연구 절차

연구진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 과정을 각 아동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아동의 자발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실험을 진행하였다.

아동들은 한 명씩 한 명의 실험자와 병원 놀이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병원 놀이는 아동이 소아과에서 흔히 경험하는 활동과 경험하지 못하는 활동들이 포함된 ‘가장 놀이(pretending play)’로써 병원 놀이에서 의사 역할을 하는 실험자와 아동 사이에 자연스런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과정에서도 아동에게 고통, 혹은 잠정적인 불안이나 공포를 유도할 수 있는 절차는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각 참여 아동은 ‘병원 놀이방’으로 안내되었고, 의사가운을 입은 실험자는 15분 분량으로 미리 짜인 대본에 따라 놀이를 진행하였다. 병원 놀이의 세부 내용과 구성 요소는 부록 1에 제시

하였다. 놀이가 끝나고 나면 아동은 다시 친구들이 있는 방으로 돌아갔다. 면담은 이와 같은 꾸며진 사건을 경험한 지 일주일 후 한 명의 면담자에 의해 시행되었다. 면담자는 각 아동의 실험 조건에 해당되는 상이한 라포형성 형태 및 소요시간에 따른 면담 프로토콜을 실시하였다. 면담자는 아동에게 ‘지난 주에 의사 선생님과 병원 놀이 후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랑 같이 가서 그 때와 맞는 사진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니?’ 라고 질문하였다. 그 후 면담자는 대상 사건이 일어난 곳과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실험 절차는 꾸며진 사건 당일의 놀이 상황 15분과 일주일 후 진행한 면담 시간(평균 20여분)으로 전체 약 30-35분 정도 소요되었다. 참여 아동

표 1. 연령과 라포형성 형태 및 라포형성 소요시간에 따른 피험자 수

연령	조건	아동 수 (n)	합계 (n)
4-5세	개방형 & 긴 라포형성	12	49
	개방형 & 짧은 라포형성	13	
	직접형 & 긴 라포형성	12	
	직접형 & 짧은 라포형성	12	
6-7세	개방형 & 긴 라포형성	12	50
	개방형 & 짧은 라포형성	13	
	직접형 & 긴 라포형성	13	
	직접형 & 짧은 라포형성	12	
8-9세	개방형 & 긴 라포형성	12	49
	개방형 & 짧은 라포형성	12	
	직접형 & 긴 라포형성	12	
	직접형 & 짧은 라포형성	13	
합계		148	148

의 연령과 주요 실험 처치의 유무에 따른 피험자 수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라포 형성의 특성 및 소요시간의 차별화

라포 형성 단계는 2가지 하위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아동을 위해 편안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구조적 형태의 개방형 섹션이다. 두 번째는 아동이 최근 경험한 중립적이지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해 볼 것을 권유하는 섹션이다. 라포 형성 단계는 면담자와 아동 간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본격적 수사면담 단계에서 사용될 기법들, 개방형 진술 조사 전략들, 면담자와 아동 사이에 상호작용의 형태들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다. 아동에게 면담 시 특정 수준의 세밀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라포 형성 단계와 본격적 수사면담 단계 사이의 이행 단계에서 일련의 질문들이 제공되었다. 이는 조사 하고자 하는 중심 사건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2가지 형태로 제시되었다. 첫 번째 아동에게 “너는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아니?” 혹은 “네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를 말해 보렴”과 같은 질문을 하고, 면담자는 아동이 제공하는 답변을 자세히 기록 한다. 오직 아동이 기억 사건(병원놀이)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에만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여 아동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서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예: ‘여기 와서 어떤 놀이를 하였니?’). 자유 회상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나는 거 모두 말해 보자’) 꼬리말 개방형 질문(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것에 대해 더 말해

줄 수 있겠니?’) 혹은 단서 초대 질문을 제공하며(예: ‘네가 사람/사물/행동 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겠니?’) 면담을 진행해 나갔다. 첫 번째 자유 서술이 완료되고 나면 사건의 세부적인 정보에 대한 아동의 자발적 회상을 촉진하기 위해 면담자는 그 사건이 ‘한 번이었는지, 혹은 한 번 이상이었는지’에 따라 사건-특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질문 단계로 나아갔다. 단 개방형 질문에 따른 아동의 자유 서술에서 더 이상 획득될 정보가 없을 때 면담자는 아동이 이전에 언급한 사건들에 한해 직접형 질문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아동이 청진기를 언급했다고 하면 “그 청진기는 무슨 색이었니?”와 같은 식으로 질문하였다. 면담의 끝에도 여전히 중요한 정보들이 생략되어 있다면 면담자는 제한적으로 선택적 질문을 제공하였다. 이는 주로 아동의 자유 서술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실들을 확보할 수 있는 네/아니오 질문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아동과 의사소통하면서 제공될 수 있는 암시적 정보가 포함된 질문은(예: ‘그때 그가 너의 머리를 만졌지? 그렇지?’) 면담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하게 금지되었다.

한편, 면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라포 형성 소요 시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짧은 시간(대략 5분 정도)과 보다 긴 시간(대략 20분 정도)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아동에게 상이하게 제공되었다. 라포의 형성 유무와 그 정도에 대해서 면담이 종결된 후 또 다른 실험자가 아동에게 질문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을 실시한 실험자는 그 결과를 볼 수 없으므로 아동이 솔직하게 응답

해도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응답하게 한다. 점수는 -10점에서부터 +10점까지며, -10점은 ‘매우 불편하다’, 0점은 ‘보통이다’, +10점은 ‘매우 편하다’로 총 21점 척도로 계산되었다. 이는 김시엽, 문옥영 및 김기민(2010)의 연구 방법에 바탕을 두었다.

3. 측정도구

기억 면담

기억 면담은 크게 라포형성 단계, 자유 회상 단계, 선택형 질문 단계 순서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기억 면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기본 규칙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 단계를 거쳐 면담자는 NICHHD가 제시하는 아동조사면담 기법에 근거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아동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면담자가 실수를 할 경우 정정할 수 있다고 말해주며,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경우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라포 형성 단계에서는 질문의 형태와 소요 시간이 조건에 따라 달랐지만, 아동 자신, 가족, 학교, 최근 겪은 특별한 사건 등에 관해 묻는 prompts가 같은 수(22) 만큼 사용되었다. 절반의 아동에게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직접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라포 형성 단계 이후 사건에 대한 회상 단계에서 두 조건의 아동들은 모두 Roberts 등(2004)이 개발한 면담 대본에 따라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아동이 병원 놀이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병원 놀이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들었다. 나는 그 놀이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알고 싶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니?’라는 물음을 제시하면서 자유 회상 단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면담자는 추가로 8가지 개방형 질문을 했다. 이 때 면담자는 아동이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다음 단계에서 아동은 25가지 선택형 질문을 받았다. 질문은 외모, 활동, 인물, 맥락, 신체 위치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나뉘고, 각각의 범주에 관한 질문을 5가지씩 제시했다. 이 중 하나는 사건에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유도성 질문이었고, 나머지는 놀이와 관련된 네/아니오 선택형 질문이었다. 사건에 대한 기억 면담이 끝나면 면담을 마무리 하였다.

아동의 불안(anxiety)

아동의 불안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 상태 특성 척도(STAIC: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ielberger, 1972)를 사용하였다. STAIC은 아동의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에 대한 물음으로 각 20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STAIC 중 상태(state)불안은 아동의 일시적인 느낌이나 감정에 대한 평가로써, 스트레스나 가벼운 통증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주관적이며 의식적으로 감지되는 상태에 대한 물음이다. 반면 특성(trait)불안은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아동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협적이거나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일반적인 반응 특성이나 사고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물음이다. 선행 연구에 의해 상태불안 문항은 우수한 내적 일관성(Cronbach's $\alpha = .82 - .87$)과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가 검증되었고, 특성불안 문항도 우수한 내적 일관

성(Cronbach's $\alpha = .78 - .81$)과 동시 타당도(concurrent validity)가 검증된 바 있다(Spielberger, 1972). 상태불안이 일시적인 정서 상태로서의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특성불안은 비교적 항구적인 성향 또는 개인의 기질적 특성으로서의 불안을 반영하기 때문에(Spielberger, 1972) 의료적인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경험에 대해 아동이 어떻게 회상하는가와 불안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태불안 수준보다는 특성불안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동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회상과 불안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상태불안보다는 평소 아동의 불안 수준이 더욱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Rocha, Marche, & von Baeyer, 2009) 본 연구에서는 특성불안 점수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아동의 불안, 기질과 같은 개인차 변인 이외에도 아동의 숫자외우기(digit span) 과제가 McCarthy(1972)의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코딩되었다. 기본적으로 숫자외우기 과제는 검사자가 불러주는 숫자열을 첫 단계에서는 바로 따라 외우고(‘바로 따라 외우기’) 다음 단계에서는 거꾸로 따라 외우게 하는(‘거꾸로 따라 외우기’)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단기 기억 능력, 주의력, 집중력을 측정하는 과제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초적인 정보 처리 능력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4. 코딩

기억 면담의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유

회상 단계, 선택형 질문 단계 동안 면담자의 prompt에 대한 아동 응답의 정확성(정확하게 응답한 반응 수)만을 계량화 하였다. 이 방식은 Yuille와 Cutshall(1986, 1989)가 처음으로 개발하고 Lamb 등(1996)이 정교화 한 방식으로써 아동의 회상 보고에서 정확하게 보고된 항목들의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회상된 정보의 수는 처음 언급될 때 계산되었고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항목은 중복 계산되지 않았다. 아동이 정확하게 응답한 항목 중 면담자의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 예: 병원놀이에서 경험한 것 중 기억나는 거 모두 말해 볼까요?)에 의해 획득된 사항들은 ‘자유회상(free recall: FR)’ 반응으로 코딩되었다. 한편, 일어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선택형 질문 즉, 암시적 정보가 포함된 질문에 아동이 ‘네’라고 동의한 응답은 ‘오정보(false alarm: FA)’로 코딩되었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점수는 각 질문 유형에 대한 아동의 응답 수의 합을 해당 질문 유형의 전체 질문 수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예를 들어 아동의 자유 회상(free recall) 점수가 .20일 경우 총 20문항 중 4문항이 면담자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아동이 자발적으로 보고한 것 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오정보 값이 .20이라면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선택형 질문 총 20문항 중 4문항에 아동이 ‘네’라고 잘못 응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동의 면담 자료에서 자유회상, 오반응의 수는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두 명의 연구자가 코딩을 진행한 후 평정자간의 내적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정자간의 일치도는 자유회상 95%(범위: 90-100%), 오정보 100%로

평정자간의 내적 타당도가 높은 수준으로 확보되었다.

5. 분석방법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참여 아동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빈도 분석을 사용하여 검토하고, 라포 형성의 종류(개방형 vs. 직접형)와 라포 형성 소요시간(long vs. short) 효과가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지 검증해 보는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의 개인차 성향(예: 기질, 불안)에 따른 라포 형성 종류와 소요시간이 아동의 회상 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관 분석과 변량 분석도 실시되었다.

III. 결과 및 해석

우선 아동의 성별이 총 보고된 정보의 양 및 정보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2 (아동 성별: 남아, 여아) $\times$ 2 (라포 형성 형태: 직접적, 개방적) $\times$ 2 (라포 형성 소요시간: long, short)에 대한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성별에 따라 총 보고된 정보의 양 및 정보의 정확성의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p > .05$). 이 결과를 중심으로 아동 성별은 연구의 주요 독립 변수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라포 형성에 소요된 시간의 길이를 초 단위까지 반올림한 후에 2 (라포 형성 조건: 직접적, 개방적) $\times$ 3 (연령: 4-5세, 6-7세, 8-9

세)에 대한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연령 집단에서 개방형 라포 형성 조건의 길이가 직접적 라포 형성의 길이보다 확실히 길었다 [$M(SD) = 20.07(1.75)$ min, $M(SD) = 5.51(1.45)$, $F(1, 146) = 31.87$, $p < .001$]. 이는 면담자가 주어진 실험 조건대로 라포 형성의 시간을 잘 조절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음 모든 분석에서는 아동의 기초적인 정보처리 능력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숫자의우기 점수를 통제 변수로 두고, 라포 형성 형태(직접적, 개방적), 라포 형성 소요시간(long, short) 및 아동의 연령(4-5세, 6-7세, 8-9세)에 따른 아동 회상 보고의 정확성을 살펴보았다. 면담자의 라포 형성 형태와 라포 형성 소요시간에 따른 아동 기억의 연령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상세히 제시하였다.

아동의 연령, 라포형성 형태와 라포형성 소요시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각 독립 변수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회상(free recall: FR), $F(2, 132) = .37$, 오정보 반응(false alarm: FA), $F(2, 132) = .25$, $p > .05$].

우선 연령에 대한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높은 연령의 아동들이 낮은 연령의 아동들에 비해 자발적인 회상(free recall: FR)을 더 많이 제공하였다[8-9세: $M(SD) = .38(.22)$, 6-7세: $.33(.15)$, 4-5세: $.24(.20)$, $F(2, 144) = 6.05$, $p < .05$]. 한편, 암시적 질문에 대한 아동의 응답, 즉 오정보 반응(false alarm: FA)은 낮은 연령의 아동들이 높은 연령의 아동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8-9세: $M(SD) = .06(.10)$, 6-7세: $.09(.06)$, 4-5세: $.16(.22)$, $F(2, 144) = 6.02$, $p < .05$].

또한 라포 형성 형태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

표 2. 라포형성 형태 및 라포형성 소요시간에 따른 아동 기억의 연령별 평균과 표준편차

		자유회상(free recall)		오정보(false alarm)	
		라포형성 형태			
		개방형	직접형	개방형	직접형
연령	라포형성 소요시간	<i>M(SD)</i>		<i>M(SD)</i>	
4-5세	긴 라포 형성	.45(.10)	.23(.10)	.09(.08)	.26(.31)
	짧은 라포 형성	.35(.21)	.09(.09)	.09(.08)	.15(.23)
	합계	.41(.16)	.10(.10)	.09(.08)	.22(.28)
6-7세	긴 라포 형성	.47(.17)	.26(.12)	.07(.05)	.09(.05)
	짧은 라포 형성	.33(.16)	.16(.16)	.10(.07)	.10(.07)
	합계	.41(.18)	.21(.15)	.08(.06)	.10(.06)
8-9세	긴 라포 형성	.47(.26)	.28(.15)	.06(.11)	.00(.00)
	짧은 라포 형성	.48(.22)	.30(.17)	.04(.04)	.07(.11)
	합계	.48(.24)	.29(.16)	.05(.09)	.07(.10)
총합	긴 라포 형성	.47(.18)	.27(.13)	.07(.08)	.17(.24)
	짧은 라포 형성	.39(.20)	.15(.15)	.08(.07)	.10(.13)
	합계	.43(.19)	.20(.16)	.07(.08)	.13(.19)

본 결과, 개방형 라포 형성 조건 아동들의 자유회상(free recall: FR)이 직접적 라포 형성 조건 아동들의 자유회상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M(SD) = .43(.19)$, $.20(.15)$, $F(1, 145) = 66.61$, $p < .001$]. 또한 개방형 라포 형성 조건 아동들이 직접형 라포 형성 조건의 아동들에 비해 오정보 반응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M(SD) = .07(.01)$, $.13(.19)$, $F(1, 145) = 5.54$, $p < .05$]. 이는 직접적 라포 형성 조건의 아동들과 비교하여 개방형 라포 형성 조건의 아동들은 전체적으로 더 정확한 보고를 제공하고, 허구적인 정보에 관련된 질문에 보다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라포 형성 소요시간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라포 형성이 길게 이루어진 조건의 아동들의 자유회상이 라포 형성이 상대적으로 짧게 이루어진 아동들의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SD) = .38(.18)$, $.24(.20)$, $F(1, 145) = 16.88$, $p < .001$]. 그러나 라포 형성의 소요 시간은 암시적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false alarm)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M(SD) = .11(.18)$, $.09(.11)$, $F(1, 145) = 1.02$, $ps > .05$]. 이는 라포 형성의 형태와 달리 라포 형성 소요시간의 차이는 아동이 암시적 질문에 저항하는 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량 분석 결과는 세 연령의 그룹에서 모두 동일한 패턴의 결과

를 나타내었다. 그렇다면 라포 형성의 형태와 소요시간의 영향이 모든 아동들에게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

각 아동들마다 면담자의 라포에 대한 직간접적 반응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아동 개인차 변인들과 아동 기억 정확성(높은 자유회상 점수 및 낮은 오정보 점수) 간의 관계성을 탐색해 보는 상관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다양한 개인차 요인들 중에서도 아동의 평소 불안 수준과 아동의 오정보 반응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5, p < .001$).

진술조사 맥락에서 아동이 오정보에 순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불안 수준에 따라 잘못된 정보에 순응하는 정도, 즉 오정보에 대한 저항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앞선 유의한 상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평소 불안 수준의 중앙치 점수[3.50, $M(SD) = 3.44(1.43)$, range: 1-5]를 기준으로 불안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변량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불안 수준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상관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게 평소 불안 수준이 높은 아동일수록 상대적으로 불안 수준이 낮은 아동들에 비해 오정보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SD) = .14(.17)$, $.05(.08)$, $F(1, 145) = 14.61, p < .001$]. 이와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아동의 불안 수준에 따라 라포 형성의 형태와 라포 형성의 소요시간이 아동 기억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계적으로 직

접 검증하기 위하여 불안 수준에 따라 나뉜 자료를 라포 형성의 형태와 소요 시간의 이원 분산 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상호 작용을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불안이 높은 아동들에게는 면담자의 라포 형성 형태와 라포 형성 소요시간의 2원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으나($F(1, 70) = 4.18, p < .05$), 불안이 낮은 아동들에게는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1, 70) = 1.13, ps > .05$). 이는 불안이 낮은 아동들의 경우 면담자의 라포 형성 소요 시간에 상관없이 개방형 라포 형성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오정보 반응이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불안이 높은 아동들에게는 라포 형성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상황에서는 개방형 라포 형성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라포 형성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상황에서만 개방형 라포 형성의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불안이 높은 아동의 경우 라포 형성이 길게 제공되는 조건 하에서 개방형 라포 형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오정보 반응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본 연구 결과는 라포 형성 형태와 소요시간과 같은 라포 형성의 질적 특성이 아동의 오정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평소 불안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함의한다. 면담자의 라포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의 회상과 같은 인지적 과제 수행의 정확성이 향상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의미 있는 발견은 평소 불안 수준이 높은 아동의 경우 라포 형성 소요시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표 3. 면담자의 라포형성 형태, 라포형성 소요시간과 아동의 불안 수준에 따른 오정보의 평균 및 표준편차

라포형성 형태	라포형성 소요시간	오정보(false alarm)	
		불안 수준이 높은 아동($n = 74$)	불안 수준이 낮은 아동($n = 74$)
개방형	긴 라포 형성	.08(.07)	.06(.08)
	짧은 라포 형성	.09(.05)	.07(.08)
	합계	.09(.06)	.06(.09)
직접형	긴 라포 형성	.30(.31)	.07(.08)
	짧은 라포 형성	.15(.15)	.03(.07)
	합계	.20(.23)	.05(.07)
총합	긴 라포 형성	.17(.23)	.06(.09)
	짧은 라포 형성	.12(.13)	.05(.09)
	합계	.14(.18)	.06(.08)

아동의 오정보 반응을 최소화해야 하는 진술 조사 맥락에서 평소 불안 수준이 높은 아동들을 면담하는 경우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면담자가 라포형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라포형성 형태, 라포형성 소요시간과 아동의 불안 수준에 따른 오정보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3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사건 기억에 대한 아동 보고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들 혹은 아동의 진술 보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법심리학 분야의 선행 연구들 대부분은 아동의 기억 발달과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는 인지적 요인들의 탐색에 초점을 두었다(Blandón-Gitlin & Pezdek, 2009). 반면, 아동 수사면담 맥락에서 면담의 구성이나 면담 특성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있다(곽금주, 이승진, 2014).

본 연구는 직접 경험한 사건에 대한 아동의 자발적 보고, 즉 자유회상적 보고와 암시적 정보가 포함된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진술조사 맥락에서 본격적인 수사면담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면담자와 아동의 라포가 이루어지는 형태(개방형 vs. 직접형), 라포형성에 소요되는 시간(long vs. short)과 같은 요인들이 아동의 자발적 보고의 정확성과 암시적 정보에 대한 저항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피해 아동들의

개인적 특성들을 반영하여 그와 같은 면담의 구성적 특성들이 아동의 내적 요인, 특히 평소 아동의 불안 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실제 피해 아동들의 수사면담을 분석한 국외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관되게(Hershkowitz, 2009), 직접 경험한 사건에 대한 아동의 자발적 보고를 향상시켜 주는 라포 형성의 형태는 직접형이 아닌 개방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의 경우에도 연령에 무관하게 면담자가 개방형으로 라포를 구축하는 경우 본격적인 면담 단계에서 아동의 자발적 보고가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가 개방형으로 라포를 구축한 경우 아동들의 암시적 질문에 대한 저항, 즉 오정보 반응이 유의한 수준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의 설명에 따르면 개방형 라포 형성은 아동에게 면담자의 잘못된 서술을 수정할 수 있는 혹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이는 곧 아동이 낯선 성인 즉 면담자의 권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기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보고하게 하는 ‘사회적으로 지지적인(socially supportive)’ 맥락을 형성한다. 따라서 아동이 오정보에 더 잘 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Roberts et al., 2004).

또한 개방형 질문은 직접형 질문처럼 면담자가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질문과는 달리 아동이 이미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 질문이 이어지게 된다(예: ‘네가 말한 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 해 보렴’). 이는 아동에게 정보자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한다. 즉 면담의 주

도권에 대한 균형이 면담자로부터 아동에게 기울어지도록 함으로써 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현재의 의사소통을 통제하는 주체이며, 면담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부여하여 자발적 보고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주고 면담자가 제공하는 오정보를 스스로 수정 할 수 있도록 한다(London, Bruck, Ceci, & Shuman, 2007). 본 연구 결과도 개방형 질문을 통한 라포 형성을 통해 면담자가 아동과 친근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 특히 개방형으로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는 것은 아동의 자발적 보고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면담자의 오정보를 수용하지 않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사면담 맥락에 적용해 보면, 본격적인 수사면담 전 아동과의 올바른 라포 형성은 아동으로 하여금 불안과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게 하고 회상 보고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을 적용해보면, 본격적인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 개방형 형태의 라포 형성은 아동으로 하여금 다양한 인출 전략을 훈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단순한 사물을 재인하는 것이 아닌 회상적 보고를 위한 인출을 연습하는 것은 본격적인 면담에서 자발적인 보고에 필요한 회상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다(Lamb & Fauchier, 2001). 따라서 라포 형성 단계에서 아동이 일반적으로 경험한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는 연습은 본격적 면담에서 아동의 자발적 보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자발적 보고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하는 수사면담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이 개방형 질문에 의해 확보된 정보들이 재인 정보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하였기 때문이다(Hutcheson, Baxter, Telfer, & Warden, 1995; Ornstein, Gordon, & Larus, 1992). 구체적으로 수사면담에서 개방형 질문은 다른 질문 형태에 비해 3-5배 정도 더 정확한 정보를 이끌어 낸다는 증거들이 보고된 바 있다(Lamb et al., 2006). 개방형 질문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사건을 회상하게 하지만 선택형 질문은 응답자가 면담자가 제시한 하나 혹은 여러 정보들의 사실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특히 네/아니오 질문, 유도성/암시성의 선택형 질문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그릇된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Brady, Poole, Warren, & Jones, 1999; Poole & Lindsay, 1998). 따라서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에서는 정보 도출 방식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개방형 질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등지에서 실시된 조사가 증명하듯이 실제 아동 수사면담에서 개방형 질문의 사용은 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면담자가 개방형 질문의 사용 방법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고, 그 효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수사면담에서 훈련된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Cyr, Lamb, Pelletier, Leduc, & Perron, 2006; Korkman, Santtila, & Sandnabba, 2006). 따라서 본격적인 수사면담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라포 형성 과정에서부터 개방형의 의사소통 과정은 아동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 이외에도 본격적인 수사면담에서 면담자로 하여금 면담

의 신뢰성에 유리한 개방형 질문을 아동에게 지속하게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Roberts 등(2004)의 연구에서는 라포 형성 단계에서 개방형 질문 사용이 지니는 부정적 영향을 한 가지 언급하였다. 3-4세 아동의 경우, 직접형 조건에서보다 개방형 라포 형성 조건에서 면담자의 첫 번째 질문에 더 많은 추가 오류(intrusion)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개방형 라포 형성의 조건 초기에 아동들은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 하도록 요구를 받았을 때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보고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아동이 제공한 전체 보고의 정확성 비율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개방형 라포 형성 조건의 아동들이 사건과 무관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보고한 내용의 수는 극히 적었고(대략 평균 2가지 정도)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연된 면담에서 개방형 라포 형성 집단의 3-4세 아동들이 직접형 조건의 아동들보다 더 높은 정확률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 초반에 나타난 오류는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로 인해 통계적으로 3-4세 아동의 경우 개방형 라포 형성과 아동 회상 보고와 상관이 없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Roberts 등(2004)은 후속 연구에서 이와 같은 면담 초반에 부가적으로 보고되는 오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분석에서 라포 형성 조건에 따라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보고한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령은 없었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처럼 6개월 후, 혹은 1년 후 지연된 면담을 실시할 경우 어떤 결과

가 나타날지는 알 수 없고, 실제 수사면담은 사건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실시됨을 고려할 때(Plotnikoff & Woolfson, 2004; Walsh, Lippert, Cross, Maurice, & Davison, 2008),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진술조사 맥락에서 면담자들이 개방형으로 라포를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의한다(예: ‘너에 대해서 말해볼래?’, ‘너의 가족에 대해서 말해보자’, ‘최근 너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보자’). 특히 본 연구에서 회상 사건으로 사용되었던 놀이 상황과는 다르게 실제 사건은 수치스런 사건 혹은 진술하기 꺼림직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이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 개방형의 라포 형성은 이후 본격적인 수사면담에서 아동의 협력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데 더 유용할 것이다(Sternberg et al., 1997). 범죄 사건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아동들은 진술 조사 시 매우 간략한 반응만을 제공하곤 한다(Saywitz, Goodman, Nicholas, & Moan, 1991).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방형 라포 형성은 미취학 아동의 자발적 회상의 양과 정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범죄 상황에 연루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면담을 실시할 경우 면담자가 라포 형성 단계에서 피해 아동에게 개방형의 질문에 응답하는 연습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라포 형성의 길이와 아동의 회상 보고 간의 부적 상관을 보여준 선행 연구와 달리(Davies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라포 형성의 소요 시간과 아동의 자발적 보고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avies 등(2000)의 선행 연구는 라포 형성 소요 시간을 실험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실시된 면담 자료를 가지고 라포 형성이 다소 길었던 면담과 짧았던 면담들을 나누어 아동의 보고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라포 소요 시간이 아동의 보고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다른 요인들(예: 아동의 내적 특성들)이 라포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아동의 보고에 모두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 Hershkowitz(2009)는 라포 형성의 소요 시간이 아동의 내적 특성들, 그 중에서도 말이 많고 적음(more talkative or less talkative)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말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라포 형성이 짧게 이루어질수록 아동의 회상 기억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긴 라포 형성은 아동의 주의와 인지적 수행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본격적인 수사면담 단계에서 아동이 가용할 수 있는 인지적 자원들을 부족하게 만드는 반면, 짧은 라포 형성은 본격적인 수사면담 과정에서 아동의 회상 보고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면담 초반에 이루어지는 라포 형성은 궁극적으로 본격적인 수사면담 단계에서 아동의 수행을 최적화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짧은 라포 형성으로 본격적인 수사면담 과정에 대한 방해로 최소화 하고 아동의 회상 보고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말이 적은 아동일수록 오히려 짧고 개방적인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부정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싫어하는 아동의 경우 짧은 라포 보다는 다소 길게 이루어지는

라포가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심지어 면담자가 라포 형성을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례 시도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Hershkowitz(2009)의 연구 역시 연구자가 라포 형성 시간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면담자가 자연스럽게 라포를 형성하고 이후 라포에 소요된 시간을 살펴 본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자발적 보고를 잘 하는 아동들은 개방형 라포 형성 조건에서 면담자의 질문에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라포 형성이 짧게 이루어졌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게는 면담자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됨으로써 라포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졌을 수 있다. 결국 짧은 라포 형성이 본격적인 수사면담 단계에서 아동의 자발적 보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과적인 추론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면담자의 지지가 아동의 자발적 보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라포 형성의 소요 시간과 아동의 회상 보고 간의 명확한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도 살펴보자면, 아동들은 실제 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해 아동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달리 면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협력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라포 형성의 소요 시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기억 면담의 질문들이 회상하기 힘든 경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놀이 경험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라포 형성의 소요 시간이 아동이 자발적으로 면담에 응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나 서술 의지 혹은 태도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미흡했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술 수사면담의 경우에도 라포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 변수가 아동의 자발적 보고의 양과 정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본 연구 결과의 주요 가치는 라포 형성의 소요시간이 아동의 내적 특성 중 평소 불안 상태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즉, 평소 불안 상태가 높은 아동들은 긴 라포 형성 조건에 비해 짧은 라포 형성 조건에서 면담자가 제공하는 암시적 정보에 대한 순응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평소 불안 상태가 낮은 아동들은 라포 형성 소요시간에 따라 오정보의 반응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라포 형성의 소요시간은 아동의 연령이나 기질적 특성보다는 아동의 평소 불안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평소 불안 상태가 높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안 상태가 낮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에 비해 라포 형성이 다소 길게 이루어지더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충분한 라포 형성이 아동의 긴장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아동으로 하여금 면담자의 암시적 정보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라포 형성이 너무 길어지면 인지적으로 부담이 되어 아동의 기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Davies 등(2000)의 주장은 아동의 평소 불안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사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들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과 무관하게 개방형 라포 형성이 아동의 자발적 보고와 암시적 정보에 대한 정확한 반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 상관없이 라포 형성이 짧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길고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 자유회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라포 형성 소요 시간은 평소 불안 수준이 높은 아동의 암시적 정보에 대한 저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아동의 자발적 보고가 수사면담 전 라포 형성 방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과 더불어 아동의 평소 불안 특성에 따라 라포 형성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범죄 사건들을 경험하는 아동의 특성들은 다양하기에 피해 아동들의 내외적인 특성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수사면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특성들을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하여 아동의 개인차 특성에 따른 아동 수사면담 방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연구들은 아동 진술 조사를 담당하는 법조계 전문가들 및 현장 실무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시업, 문옥영, 김기민 (2010). 수사 면담시 라포가 진술의 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49-167.
- 김연수, 곽금주 (2013).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인간발달연구*, 20(1), 29-49.
- 곽금주, 이승진 (2014). NICHD 아동 수사면담 프로토콜과 지속적인 면담자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1), 285-306.
- 곽금주, 이승진 (2006). 아동 증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13-40.
- 이승진, 곽금주 (2013). 아동의 수줍음 경향,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출처 감찰 훈련이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자유 회상 보고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4), 59-80.
- Blandón-Gitlin, I., & Pezdek, K. (2009). Children's memory: Suggestibility, false memory,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B. L. Bottoms, C. J. Najdowski, & G. S. Goodman (Eds.), *Children as victims, witnesses, and offenders: Psychological science and the law* (pp. 57-80). New York: Guilford Press
- Brady, M., Poole, D. A., Warren, A. R., & Jones, D. (1999).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yes-or-no questions: Patterns and problem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3, 47-57.
- Chen, E., Zeltzer, L. K., Craske, M. G., & Katz, E. R. (2000). Children's memories for painful cancer treatment procedures: Implications for distress. *Child Development*, 71, 933-947.
- Cyr, M., Lamb, M. E., Pelletier, J., Leduc, P., & Perron, A. (2006, July 5-7). *Assessing the*

- effectiveness of the NICHD Investigative Interview protocol in Francophone Quebec*.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International Investigative Interviewing Conference, Portsmouth, UK.
- Davies, G. M., Westcott, H. L., & Horan, N. (2000). The impact of questioning style on the content of investigative interviews with suspected child sexual abuse victims. *Psychology, Crime & Law*, 6, 81-97.
- Hershkowitz, I. (2009). Socioemotional factors in child sexual abuse investigations. *Child Maltreatment*, 14(2), 172-181.
- Hershkowitz, I., Horowitz, D., & Lamb, M. E. (2007). Individual and family variables associated with disclosure and nondisclosure of child abuse in Israel. In M. E. Pipe, M. E. Lamb, Y. Orbach, & A.-C. Cederborg (Eds.), *Child sexual abuse: Disclosure, delay, and denial* (pp. 65-75). Mahwah, NJ: Erlbaum.
- Hershkowitz, I., Lamb, M. E., Katz, C., & Malloy, L. C. (2013). Does enhanced rapport-building alter the dynamics of investigative interviews with suspected victims of intra-familial abuse?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1-9. DOI: 10.1007/s11896-013-9136-8
- Hershkowitz, I., Orbach, Y., Lamb, M. E., Sternberg, K. J., & Horowitz, D. (2006). Dynamics of forensic interviews with suspected abuse victims who do not disclose abuse. *Child Abuse & Neglect*, 30, 753-769.
- Hutcheson, G. D., Baxter, J. S., Telfer, K., & Warden, D. (1995). Child witness statement quality: Question type and errors of omission. *Law and Human Behavior*, 19, 631-64.
- Hynan, D. J. (1999). Forensic psychological interviews with children. *The Forensic Examiner*, 8, 25-28.
- Jones, D. P. H. (2003). *Communicating with vulnerable children*. London: Gaskell and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 Korkman, J., Santtila, P., & Sandnabba, K. (2006). Dynamics of verbal interaction between interviewer and child in interviews with alleged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7, 109-120.
- Lamb, M. E., & Fauchier, A. (2001). The effects of question type on self-contradictions by children in the course of forensic interview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5, 483-491.
- Lamb, M. E., Hershkowitz, I., Sternberg, K. J., Esplin, P. W., Hovav, M., Manor, T., & Yudilevitch, L. (1996). Effects of investigative utterance types on Israeli children's respons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 627-637.
- Lamb, M. E., Orbach, Y., Hershkowitz, I., Esplin, P. W., & Horowitz, D. (2007). Structured forensic interview protocols improve the quality and informativeness of investigative interviews with children: A review of research using the NICHD Investigative Interview Protocol. *Child Abuse & Neglect*, 31, 1201-1231.
- Lamb, M. E., Sternberg, K. J., Orbach, Y., Aldridge, J., Bowler, L., Pearson, S., & Esplin, P. W. (2006, July 5-7). *Enhancing the*

- quality of investigative interviews by British police officers*.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International Investigative Interviewing Conference, Portsmouth, UK.
- London, K., Bruck, M., Ceci, S. J., & Shuman, D. W. (2005). Disclosure of child sexual abuse: What does the research tell us about the ways that children tell? *Psychology, Public Policy, & Law*, 11, 194-226.
- London, K., Bruck, M., Ceci, S. J., & Shuman, D. W. (2007). Disclosure of child sexual abuse: A review of the contemporary empirical literature. In M. E. Pipe, M. E. Lamb, Y. Orbach, & A. C. Cederborg (Eds.), *Child sexual abuse: Disclosure, delay and denial* (pp. 11-39).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McCarthy, D. (1972). *McCarthy scales of children's abilities*. Psychological Corporation.
- Morgan, M. K., & Friedemann, V. M. (1988). Abuse and religion: When praying isn't enough. In A. L. Horton & J. A. Williamson (Eds.), *Abuse and religion: When praying isn't enough* (pp. 145-155). Lexington, MA: Lexington Books/D. C. Heath and Co.
- Ornstein, P. A., Gordon, B. N., & Larus, D. M. (1992). Children's memory for a personally experienced event, implications for testimony.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6, 49-60.
- Plotnikoff, J., & Woolfson, R. (2004). *In their own words: The experiences of 50 young witnesses in criminal proceedings*. London: NSPCC.
- Poole, D. A., & Lindsay, D. S. (1998). Assessing the accuracy of young children's reports: Lessons from the investigation of child sexual abuse.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7, 1-26.
- Powell, M. B., & Lancaster, S. (2003). Guidelines for interviewing children during child custody evaluations. *Australian Psychologist*, 38, 46-54.
- Putnam, S. P., & Rothbart, M. K. (2006). Development of short and very short forms of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7(1), 103-113.
- Ridley, A. M., Gabbert, F. & La Rooy, D. J. (2012). *Suggestibility in legal contexts: Psychological research and forensic implications*. West Sussex, UK: Wiley-Blackwell.
- Roberts, K. P., Lamb, M. E., & Sternberg, K. J. (2004). The effects of rapport-building style on children's reports of a staged event.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8, 189-202.
- Rocha, E. M., Marche, T. A., & von Baeyer, C. L. (2009). Anxiety influences children's memory for procedural pain. *Pain Research & Management*, 14(3), 233-237.
- Ruddock, A. C. (2006). The relationship of interviewer rapport behaviors to the amount and type of disclosure from children during child abuse investigation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7(4-B), 2241.
- Saywitz, K. J., Goodman, G. S., Nicholas, E., & Moan, S. F. (1991). Children's memories of a physical examination involving genital touch: Implications for reports of child sexual abuse.

-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682-691.
- Spielberger, C. D. (1972).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cal Press.
- Sternberg, K. J., Lamb, M. E., Hershkowitz, I., Yudilevitch, L., Orbach, Y., Esplin, P. W., & Hovav, M. (1997). Effects of introductory style on children's abilities to describe experiences of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1, 1133-1146.
- Teoh, Y. S., & Lamb, M. E. (2010). Preparing children for investigative interviews: Rapport-building, instruction, and evaluation.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4(3), 154-163.
- Walsh, W. A., Lippert, T., Cross, T. P., Maurice, D., & Davison, K. (2008). How long to prosecute child sexual abuse for a community using a Children's Advocacy Center and two comparison communities? *Child Maltreatment*, 31(1), 3-13.
- Westcott, H. L., & Kynan, S. (2006). Interviewer practice in investigative interviews for suspected child sexual abuse. *Psychology, Crime & Law*, 12, 367-382.
- Wood, J. M., McClure, K. A., & Birch, R. A. (1996). Suggestions for improving interviews in child protection agencies. *Child Maltreatment*, 1, 223-230.
- Yuille, J. C., & Cutshall, J. L. (1986). A case study of eyewitness memory of a crim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2), 291-301.
- Yuille, J. C., & Cutshall, J. (1989). Analysis of the statements of victims, witnesses and suspects. In J. C. Yuille (Ed.), *Credibility assessment* (pp. 175-191). Springer Netherlands.

1 차원고접수 : 2014. 04. 15.

수정원고접수 : 2014. 05. 14.

최종게재결정 : 2014. 06. 03.

The Effects of Interviewer's Rapport-building Style, Duration, Children's General Anxiety Level, and Ages upon Event Memory

Lee, Seungjin

Kwak, Keumjoo

The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wo external factors and one internal factor were explored in association with children's responses to general probes about their previous experiences. Particularly, this study sought to test to what extent (a) the questioning style and length in the rapport-building session and (b) the level of children's general anxiety were linked with the accuracy of children's recall across ages. A total of 148 children aged from 4 to 9 years interacted with researcher during an event and were interviewed about the target event by another researcher. The results suggested that more accurate information in the child's voluntary responses was associated with an open style rapport-building condition regardless of the children's ages. More interestingly, the accuracy of children's free recall differed as a function of a length of the rapport-building and the level of children's general anxiety level; that is, children who were evaluated as comparatively more anxious than other children who were evaluated as rather less anxious recalled information in greater detail in a long rapport-building condition. Ultimately, this study identified a number of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how children report an experience and especially, the findings are marked for more anxious children in general who are in special need of support and for whom a long and open style rapport-building with the interviewer might be more important.

Keywords: rapport-building style, rapport-building duration, anxiety, children's memory, children's testimony

부록 1. 병원 놀이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성 요소들의 예

흰색 의사 가운을 입은 실험협조자는 자신을 소아과 의사라고 소개하고 아동의 손을 직접 씻겨준다(action). 이후 아동의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이 있는지를 살펴본다(action). 그 뒤 아동용 체온계(feature)로 아동의 체온을 측정하고(action), 아동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여 차트에 기록하면서 측정된 값을 아동에게 알려준다(action). 그리고 실험협조자는 아동에게 손거울(feature)을 쥐어주면서 아동이 입을 벌려 자신의 입안을 들여다보게 한다(action). 그리고 의사는 압설자(feature)로 아동의 혀를 살짝 누르며 입 안을 들여다보고 아동의 목이 붓지 않고 감기 기운이 없음을 아동에게 알려준다(action). 그리고 의사는 청진기(feature)를 가지고 아동의 배와 등에 갖다 대며(action) 아동에게 심호흡을 크게 3번 정도 하도록 요구한다(action). 이후 아동의 반사 능력을 살펴보는 과정이라는 설명과 함께 의료망치(feature)로 아동의 무릎을 두드려 무릎 반사(action)를 체크한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검은색 사진기(feature)로 아동의 다양한 포즈를 사진으로 찍어준다(action). 마무리 과정에서 의사는 아동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action) 아동에게 병원 놀이에 잘 참여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그리고 보상으로 아동에게 스티커와 장난감(feature) 중 갖고 싶은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action). 마지막으로 병원 놀이를 기념하는 사진촬영을 하도록 한다(action).

부록 2. 직접형 라포 형성과 개방형 라포 형성 절차 예시

직접형 조건(direct condition)	개방형 조건(open-ended condition)
너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 (자신).	
2.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니?	2a. 너에 대해 잘 알고 싶다. 너에 대해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렴. (아동이 1번 질문에 대답한 경우, 질문:) 2b. _____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렴. (아동이 이전에 언급한 주제)
4.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무엇이니?	4a. 너에 대해 정말 더 알고 싶다. 집에 있을 때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더 이야기해 보렴. (아동이 3번 질문에 대답한 경우, 질문:) 4b. _____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렴. (아동이 이전에 언급한 주제)
지금까지는 너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 이번엔 너의 가족에 대해 듣고 싶다. (가족)	
6. 네 형제/자매들은 몇 살이니?	6a. 네 가족과 관련된 모든 걸 알고 싶다. 가족들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렴. 6b. _____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렴. (아동이 이전에 언급한 주제)
7. 네 침실에는 무엇이 있니?	7. 네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모든 걸 이야기해 보렴.
지금까지는 네 가족과 집에 대해 이야기했지. 이번에는 네 유치원/학교에 대해 듣고 싶다.	
9. 몇 학년이니?/몇 반이니?	9. 네 학교/캠프에 대해 다 이야기해 보렴.
10. 너는 좋은 학생이니?	10. 네 학교/캠프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렴.
13. 선생님/상담 선생님은 누구니?	13. 네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렴.
14. 선생님은 좋은 분이시니?	14. _____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렴. (아동이 이전에 언급한 주제)
15. 네 친구들은 누구니?	15. 네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렴.
16. 친구들과 어떤 게임을 하니?	16. _____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렴. (아동이 이전에 언급한 주제)